

반도체 대형주 급등 후 조정, 온기는 코스닥으로

KOSPI 6,257pt(-5.1%), KOSDAQ 737pt (+2.4%)

① 해외 상황 빅테크 호실적에 강세, 반도체는 조정

- 전거래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나스닥 +1.0%, S&P500 +0.7%, 다우 +0.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07%). 아마존, AWS 매출 +37% 및 사상 첫 분기 매출 2,000억달러 돌파에 +15.3% 급등하며 지수 상승 주도, 마이크로소프트(+3.0%)도 강세 지속하며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시즌 마무리. 반면 애플(-7.4%), 3분기 공급 제약 가이드언스에 급락하며 상승폭 제한. 반도체는 전거래일 급반등 이후 숨고르기 진행되며 보합권 마감(마이크론 -5.9%, SK하이닉스 ADR -3.5%). 한편 주말 사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및 이란 핵 위협 종식 포함한 합의 틀 마련 이유로 대규모 이란 공격 전격 취소. 금일 오전에는 호르무즈 협상 성사 직접 언급 및 비핵화 합의 예고, 오늘 오후(현지시간) 협상 재개 예정

② 수급 외국인/기관 하루만에 순매도 전환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4.7조, 외국인 -2.8조원, 기관 -1.9조원 순매수(금투 -1.5조원, 투신 -0.5조원).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순매도 대부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

③ 특징업종 대형주 조정, 중소형주/코스닥 강세

- 코스피 대형주 -5.5%, 중형주 -0.7%, 소형주 +0.3%. 반도체 대형주 급락(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 -8.8%)한 반면 중소형주 및 코스닥 강세. **1) 코스닥 바이오:** 일라이릴리 한국 공급망 완성단계 가능성 뉴스플로우 보도, 펩트론 상한가. 이외 알테오젠(+2.9%), 에이비엘바이오(+6.3%), 리가캠바이오(+9.0%) 등 강세. **2) 로봇:** 미국, 중국산 로봇 신규 수입 제한 소식. 레인보우로보틱스(+5.9%), 로보티즈(+17.3%), 두산로보틱스(+4.6%), 현대무브스(+8.7%) 등 강세

④ 이벤트 대형주 실적주간 마무리, 시선은 재차 매크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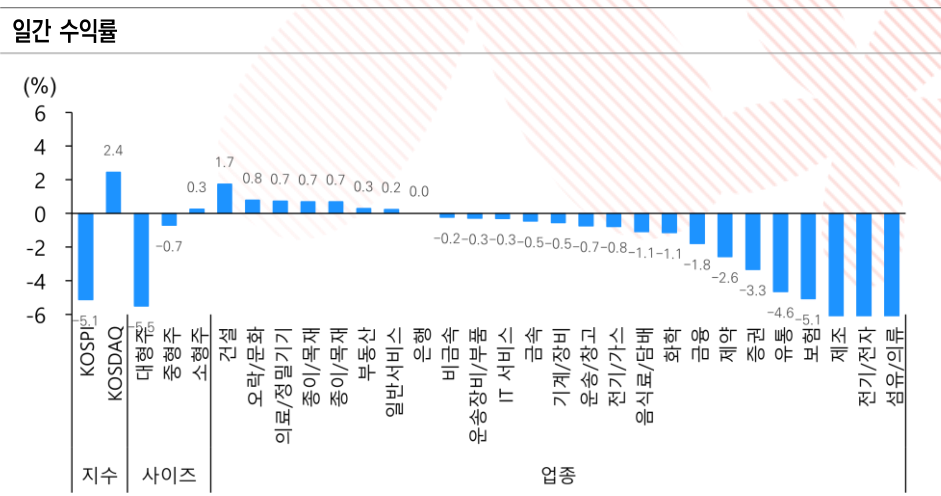
- 1) 美 ISM 제조업 PMI(8/3 23:00) 2) 美 ISM 비제조업 PMI(8/5 23:00) 3) 美 고용보고서(8/7 21:30)

⑤ 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코스닥 온기로 반영되기 시작

- 금일 KOSPI -5.1% 하락, KOSDAQ +2.4% 상승하며 양 지수 간 차별화. KOSPI 하락은 역대 최대 상승률 기록 직후 조정 과정으로 해석.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와 26% 폭등했던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반도체 업종이 -8%대 낙폭으로 지수 하락 주도. 지난 금요일 급등했던 해외 반도체 관련주 역시 금일 대부분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만의 이탈이 아닌 급반등 이후 아시아 반도체 전반의 공통된 숨고르기 국면으로 해석. 급락 국면마다 투매에 동참하던 개인이 금일은 대규모 순매수로 대응한 점도 7월의 공포 국면과는 다른 양상
- 반면 KOSDAQ은 2거래일 연속 급등 이어가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 반도체를 떠난 자금이 제약·바이오, 로봇 등으로 이동하며 순환매 유입. 지난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과 함께 전망했던 '대형 반도체 쏠림 완화 → 중소형 성장주 낙수효과'가 시행 2거래일 만에 현실화되는 모습. 결론적으로 금일 하락은 추세 훼손이 아닌 수급 재편 과정으로,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구간이라는 판단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19,475	1,669
외국인	-28,262	-2,092
개인	46,527	336
거래대금	261,204	54,350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